

한반도 평화변영과 기후변화



A person in silhouette stands on a wooden pier, looking out at a misty sea and mountains. The scene is atmospheric and contemplative, with the person's back to the camera. The text "나는 누구인가?" is overlaid in the center.

나는 누구인가?

시대정신

성과와 실패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해야할 일을 준비하여,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제대로 알고 잡아채서 결실을 맺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항상 준비

북한 소년궁전 - 무대 커트

한반도 주변정세와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준비할 수 있다

통일독일의 아버지 겐셔와 <별의 순간>



- ▣ 18년 외무장관
- ▣ 40년 먹구름
- ▣ 통일의 별

철저준비와 기회포착

빌리 브란트 (사민당 총리)



1969 동방정책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독일통일 예측실패

1-2차 세계대전 전범국, 주변 시크

준비철저 : 접촉통한 변화, 정당시민단체
교류, 정치범석방, X마스
친척방문, TV시청

콜 총리(기민당) : 일관성, 서독주도준비
-기회포착

고르바초프vs 레이건

트럼프와 김정일 위원장의 막말대결



트럼프·김정은의
원색적 상호 비난



2017년 9월

트럼프 “로켓맨이 자살 임무 수행 중”

김정은 “노망 난 늙은이 불로 다스릴 것”

2017년 11월

“우릴 시험하지 마라”

노동신문 “인간 추물에게 개죽음을”

2018년 1월

“핵 단추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

“나는 훨씬 크고 강력한 단추 있다”

민주평통, 한미연합군사군사훈련 연기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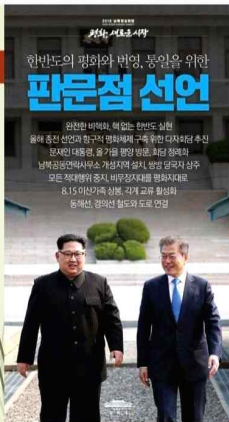
김여정-맹경일-펜스-앤드류 김 북미회담



4.27 판문점 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의 정식명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기회를 만들었던 경험, 지금이 기회 한반도 주변정세-바이든 정부 출범



바이든표 새 대북정책 뭐가 다를까



오바마 행정부

전략적 인내·거리두기

압박에 중점 두며
외교적 관여를 미뤘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

결과

북한, 오바마 재임기
동안 핵미사일 능력
크게 향상



트럼프 행정부

일괄타결·툼다운

탄탄한 실무협상 없이
정상간 담판에 치중한
트럼프식 '빅딜' 외교

결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이끌었으나 대북
정책상 성과 없었음



조 바이든 행정부

단계적 접근 외교

역대 미 정부가 추구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전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새 접근법 모색

예상

대북 압박 지속하며
실무 수준의 접촉부터
단계적 대화 추진 예상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한 접근 가능성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바이든 세계전략

글로벌 리더십 회복

- ▶ 고립주의 버리고 외교력과 군사력으로 국제 질서 리드

동맹 우선

- ▶ 한미·미일동맹 중시하고 환태평양 동맹국 통해 중국 압박

기술 패권

- ▶ 국가 기술역량 강화해 中 추격 뿌리치고 패권 장악

통화 패권

- ▶ 기축통화 지위 강화, 디지털 화폐 신중

북한 핵문제

- ▶ 압박과 제재로 협상장 끌어내 문제 해결

북한의 변화 : 경제건설 총력집중

북한, 국가 노선 변경
(2018.4.20 제7기 3차 전원회의)

선군정치와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으로



노동당 규약개정 :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1. 노동당 규약 개정 (2021.1.9.)

· 선군정치 →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군대보다 인민 대중을 중시하는 정치 표명

2021년 당중앙위 3차회의

북한의 변화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2021.6.15.~18)

1. 대화와 대결 다 준비

2. 령도자 우상화 완화

3. 통일혁명론 삭제

남북교류 : 금강산과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핵심가치 / 의의

① 평화 : 상호존중, 화해협력, 공존공영, 평화번영의 장

② 경제 : 세계 최고 경쟁력 - 한국 미래경제의 창

③ 안보 : 군사적 긴장 완충장치, 안전장치

④ 통일 : 다름, 차이 소통, 매일 평화/통일 사례 축적

〈남북의 평화/경제/안보/미래통일의 상징〉

개성공단은 5% 주고, 95% 은 퍼오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생산액
총 32억3천 달러

하청업체 납품단가 기준으로 1달러 투입으로
4.6달러 산출물 획득

최종소비자가격 기준, 20~30배의 투자가치
회수

진출 기업 120여 곳, 협력업체까지 3,800곳
가동, 일자리 8만 개 창출

세계는 지금 : 기후변화와와의 사투



이미 진행중인 기후위기

**차이나는
클라스** 갑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이제는 기후위기다!

Support The Guardian
Available for everyone, funded by readers
Contribute → Subscribe →

Search jobs Sign in Search

**The
Guardian**

jtbc
일화드라마
검사내전
12/16(월) 밤 9:30
첫 방송

tion ▾

News Opinion Sport Culture Lifestyle More ▾

Environment ▶ Climate change Wildlife Energy Pollution

**Guardian climate
pledge 2019**
Environment

**'It's a crisis, not a change': the six
Guardian language changes on climate
matters**

A short glossary of the changes we've made to the Guardian's style
guide, for use by our journalists and editors when writing about
the environment

Support Guardian journalism today, by making a **single or
recurring contribution, or subscribing**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들



지구촌 곳곳

가뭄-폭우 폭염-한파

북미와 터키의 산불

독일의 홍수

캐나다-북유럽-러시아

폭염

텍사스의 한파

북아내리는 킬리만자로 만년설과 빙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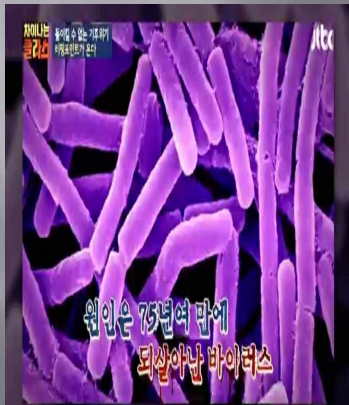


28조톤

euronews. 2020.08.26.

“지난 26년간 28조톤의 빙하가 사라졌다!”

영구동토층 해빙의 치명적 폐악



영구동토층은 탄소덩어리
공기중 2배

이산화탄소보다 28배 강력한 온
실가스 메탄분출

짐승사체 등 동결중 휴면상태
과거바이러스와 병원체들 부활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생물 가운데
20%~70%가 멸종한다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

지구 기온이 **4도** 오르면
뉴욕, 상하이, 시드니, 인도 뭄바이
등을 포함해 6억 명 이상 사는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다

미국 기후변화연구소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 2015년 발표

북극의 눈물(자연, 생태)만이 아니다



경제와도 직결

2025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손실은 1조 7,000억 달러

2075년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비용은 30조 달러

전 세계 GDP의 5% 수준.

한국의 현황



- ▣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기후악당' (2016년 4월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 '클라이밋 홈 뉴스')
- ▣ 세계보건기구(WHO) :
- ▣ 50년 후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 ▣ - 한국, 중국, 인도 및 중앙아시아

EU-미국 탄소 국경세



EU는 2023년 탄소국경 조
정제도 도입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

미국 무역대표부도 검토

한국 2023년 6,100억원
2030년 8,700억원 예상

신재생에너지 남북공동대응 가능



남한의 야경과 북한의 야경

북한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

풍력발전 북한 잠재량 400만kW

매년 85.8억kWh의 전력생산 가능

태양광 발전 잠재량도 연 289만GWh

‘신재생 에너지의 공동 개발 및 활용’으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 가능.

미세먼지 해결 : 전기차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

중국발 30-50%

나머지는 화력발전소

자동차의 배기가스

산업 시설 등에서 발생

전기자동차 2020년 3%

2040년 55% 예상

내가 본 평양 : 평양정상회담

내가 본 평양

- ▶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
- ▶ 2018년 11월 <세계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주최

잘살고자 변하려는 북한을 보았다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2018.11.15-18)

- 경제 분야 중심 시찰과 논의에서 북한, 투자환경조성과 경제협력 강조
- 리용남 내각부총리 직접 참석 축하,
- 민경련 방강수 위원장과 박명철 부위원장 등 지도부와 실무 간부 총출동
- 경제특구소개 및 투자설명회 진행
- 경제협력과 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적
- 경제발전과 비핵·평화로 가는 흐름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 지금 북한의 변화를 불가역적 흐름으로 만들어야

핵보다는 잘살고싶은 북한

핵 보다는 잘 살아보고 싶은 북한을 확인

사람들의 복장, 표정 밝고, 화려,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

“미 제국주의 타도” 호전적 구호 대신

-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 “달려가자 미래로”

-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 “모든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기차물고 판문점넘어 평양으로



세계석학들이 본 우리의 미래전망



- ▣ 짐 로저스/조지 소르소/워렌버핏
- ▣ 전 재산 북한에 투자하겠다
- ▣ 지금 북한은 1981년 중국모습

The image shows the Goldman Sachs logo in a large, blue, serif font, positioned over a photograph of the New York City skyline. The skyline includes several prominent skyscrapers, with the Freedom Tower (One World Trade Center) being the most prominent on the right side. The sky is a clear blue with some light clouds. The logo is partially obscured by a red horizontal bar at the top left of the image.

Goldman
Sachs

- 골드만삭스(2009년)

2028년-2038년 통합과정 거치면

2030년 GDP 43,000\$

2042년 66,000\$-독일, 프랑스 제
쳐

건국이념 : 홍익인간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사상이다.”



게오르규
'25사'의 저자

기회

천시 - 글로벌시대

지리 - 아시아태평양시대

인화 - 남북화해협력, 남남갈등, 보혁갈등



전쟁없는 평화

공동번영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통일)

감사합니다

